



전북대 간호대학, 미 애리조나대와 국제협약

전북대학교 간호대학(학장 정석희)은 최근 미국 애리조나대학교(University of Arizona) 간호대학(학장 Hyochol Brian Ahn)과 국제협약(IMO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6일 전북대에 따르면 정석희 학장 및 관계자들은 전북대를 방문한 애리조나대학교 Hyochol Brian Ahn 간호대학장을 만나 양 대학 간 학생 교류를 비롯해 교육, 연구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협력과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기로 했다.

특히 애리조나대학교 간호대학은 2025년 미국 U.S. News & World Report 평가에서 학부, 대학원, 전문간호사 박사과정 모두에서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명문 간호대학으로, 이번 협약은 전북대 간호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석희 학장은 "글로벌 간호교육의 흐름에 발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과 협력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양 기관 간 활발한 교류와 공동 발전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장수경찰서, 영예로운 근속승진 임용식 진행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최근, 경찰서 서장 집무실에서 서장, 각 과장, 동료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근속승진 임용식을 가졌다.

이번 승진 임용식에서는 교통관리계 김하나 순경이 경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임용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동료 직원들의 꽃다발 전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하나 경장은 "함께해준 동료들 덕분에 승진할 수 있었으며,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경찰 동료직원들과 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재현 경찰서장은 "영예로운 승진임용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에 수행하는 경찰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정수고관호 기자



고창소방서, 화재예방 위해 하림 무장부화장 방문

고창소방서는축사시설의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선별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림 무장부화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축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 최근 축사 화재 사례 전파, 선제적 안전관리의 중요성 강조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축사는 가연물이 많고 구조상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반드시 사전 점검과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며, 스스로 대비하는 자율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배전반에서 발생하는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초기 화재 발생 시 대응 요령 △신속한 대피 방법 △119 신고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높였다. /고창=김영성 기자

전북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춘향제서 안전문화캠페인

전북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최근, 제95회 남원 춘향제에서 안전문화 부스운영과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남원 고용센터는 안전문화 캠페인과 안전일터조성의 날, 시기별 메시지 송출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활동을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전파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남원 춘향제를 찾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OX 퀴즈, 춘향이에게 보내는 안전편지 등을 통해 관광객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안전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안전보건자료 배포(온열질환 방지대책, 익산안전체험관 등)와 작업별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널리 홍보했다. /이만호 기자

“교육자치 실현 · 학생복지 향상 위해 헌신”

김도영 예원예대 교수, 완주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신입 회장 선출

완주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신입 회장에 김도영 전주예술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 선출됐다.

완주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완주군교육지원청에서 협의회장 선거를 열고, 3명의 후보 가운데 김도영 위원장을 최종 당선인으로 확정했다.

완주군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56개교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여한 이번 선거에서 김 회장은 풍부한 교육·문화 경력을 바탕으로 지지를 얻었다.

김도영 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법적 설립 취지에 맞춰 학교운영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활성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공약으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급식 품질 및 위생 점검 체계 확립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확대 △운영위원장 간 소통 플랫폼 구축 △문화예술 중심 교육과정 보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협의회장 자리를 정치적 도구로 삼지 않겠다”며 “교육자치 실현과 학생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학 박사인 김도영 신입 회장은 현재 예원예대학교에서 예술철학과 문화재학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담 원장,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공동위원장, 한복모델선발대회 인 코리아 공동조직위원장, 전북·전남·충남·세종 문화유산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호남미술사학회 회장, 한국사예학회 부회장, 세계사에전북비엔날레 초대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진안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장한 아버지’ 표창

김기선·설종남씨 등 12명에 표창패

진안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장한아버지 12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자녀를 바르고 훌륭하게 키운 장한아버지를 선정해 헌신과 노고에 존경을 표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마련했다.

장한아버지 표창대상자는 각 읍면의 추천을 받아 모범적이고 건장한 가정을 이루어 사회와 이웃에 귀감이 되는 어르신들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김기선(진안읍), 설종남(진안읍), 안준옥(용담면), 정점심(안천면), 안순례(동향면), 구찬숙(상전면), 이영창(백운면), 전현순(성수면), 김곡태(마령면), 박수봉(부귀면), 김인순(정전면), 허정순(주전면)이다. 전현순 군수는 “헌신과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신 아버



이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과 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어버이날에 맞춰 장한아버지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지부협의회장배 ‘제2회 아름다운 동행 사랑의 골프대회’ 성료

한명옥 협의회장 “보호대상자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에 보탬 되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회장 한명옥)는 최근 태인컨트리클럽에서 전북지부협의회장배 제2회 아름다운 동행 사랑의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전북지부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북지부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정준)가 주관했으며, 전북지부 각 기능별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대회의 목적은 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법무보호기금 마련과 보호위원 간의 유대 강화에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지부 소속 보호위원들이 다수 참석해 골프 경기를 통해 화합을 다지고, 기금 마련이라는 뜻깊은 목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명옥 협의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이번 행사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보호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준 사전상담위원회 회장은 “뜻깊은 행사에 많은 위원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형성된 협력 분위기가 보호대상자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이순재 지부장은 “아름다운 동행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며 “이번 골프대회처럼 나눔과 연대가 살아있는 행사들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보호공단 전북지부와 전북지부협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위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어린이날 맞아 소방안전체험행사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도내 여러 지역에서 운영한 소방안전체험행사가 어린이와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행사는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군산 월명 실내체육관, 익산 원광대학교, 김제 실내체육관, 임실 치즈테마파크, 부안 해물마루 지방정원, 진안 문예체육회관, 장수 다목적체육관(사과관), 고창읍성 앞 잔디발광장, 완주군청 어울림 광장 등 도내 각지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또한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3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119 안전체험관에서 특별 어린이 안전행사가 열려 많은 가족 단위 체험객이 몰렸다. /이만호 기자



강성봉 전 전북도의원, 진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진안군은 최근 전 전북도원이자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축산업육성 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강성봉씨가 진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성봉씨는 “진안군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이 더욱 활기차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주신 강성봉 전 의원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 덕분에 지역사회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으며 소중한 기부금은 진안의 발전을 위해 뜻깊은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문화재단, 동문창작소 1호점 2기 입주작가 지원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동문창작소 1호점 2기 입주작가들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활동 지원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일 재단과 협약식을 가진 2기 작가들이 입주할 동문창작소는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이 공간은 전주시 원도심 동문거리에 위치한 삼양다방(동문길 94) 3층과 4층에 마련, 창작공간 9실(13평)과 공용공간(휴게공간, 간이스터) 2실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입주작가 9명은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미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작품활동을 이어온 작가로, 모두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들은 재단이 지원한 작업 공간에서 1년간 협의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공간을 운영하며, 창작 활동을 한다.

주요 활동으로 동문거리 상점가와 연계한 전시와 오는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공유회화실(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60)에서 매달 2주간 개인전을 릴레이로 개최된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동문창작소가 다양한 예술 장르가 교류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전주 고유의 창의적 문화를 확산하는 창작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진안경찰서, 연휴기간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활동

진안경찰서(서장 홍장득)는 긴 연휴 기간 및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및 관내 사찰에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선제적으로 진안군 내 다중이용시설 및 관내 사찰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성범죄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관광객들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부·남부미산, 운암안반암 및 마이산 탐사 등을 중심으로 여자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자 화장실 등 공중화장실 안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의 위험성과 적발 시 처벌조항을 안내하는 등 홍보 효과를 높였다.

홍장득 서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연휴 기간 중 진안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불법카메라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누구나 안심하고 즐겨주는 진안 방문이 될 수 있도록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부안전력공사,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200만원 기탁

부안전력공사(대표 정천수)는 최근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지역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정천수 대표는 “군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재단에 기탁하게 되었다”며 “지역발전의 커다란 성장 동력이 되어 부안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길 바란다”고 마음을 전했다.

권익현 이사장은 “후원자의 깊은 뜻을 마음에 새겨, 지역사회에 학생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은 부안 출신 대학생에게 전학년 전학기 반값등록금, 다자녀장학금, 특기장학금, 대학교 비전학 창업 및 취업을 위한 학원비 지원 등 군민들 피부에 외닿는 다양한 장학금 사업을 펼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진안지사 546-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645-9935	010-2333-4791	순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서신지사 272-941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호지지사 010-8645-9935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